



벌꿀의 완전수입 자유화에 따른 양봉 산업의 전망과 양봉경영의 개선 방향



고려양봉원, 고려양봉산업 대표 고상인

대망의 새 천년 한해도 찬서리가 내리고 양봉농가는 내년을 위해 월 동포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한해가 왠지, 짧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새 천년의 21세기에 접어든 현대 양봉을 돌이켜 보면 과거의 단순 봉산물 생산 양봉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현대 양봉은 과거의 사양관리 양봉에서 양봉 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양봉산업의 경영 또한 과거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21세기 다양화된 양봉산업에 걸 맞는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계속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세계화의 경쟁에 동참할 수 없으며 낙후되고 만다는 현실을 알아야 하겠다.

1997년 7월 양봉산물 중에서 마지막 남은 벌꿀의 수입 자유화로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봉산물도 100% 수입 자유화되었다. 봉산물이 100% 수입자유화 되기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처할 뚜렷한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 한국 양봉산업의 현실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양봉협회 정해운 회장의 노력으로 단절된 농산부와 의 유대강화로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업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봉산물의 품질 고급화 등 제반 산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7월 봉산물 중 마지막 남은 벌꿀이 수입개방 될 때 다행히 정부에서 당시 수입 자유화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영세한 우리 양봉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벌꿀에 3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므로 지금까지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고율 관세는 매년 2.7%씩 관세를 낮추게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약 243% 정도까지 관세가 낮아지게 된다. 수입되고 있는 벌꿀에 이와 같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양봉업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은 2004년도에 WTO에서 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

적인 보호기간은 2003년도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양봉협회에서도 양봉업계의 사활이 걸린 만큼 2004년도 재협상시 최소한 100%의 고율 관세 부과 조건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신념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04년도 WTO에서 재협상시 이러한 고율 관세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2004년도 후반부터 늦어도 2005년부터는 일반 관세 8%가 적용되므로 저가의 외국산 벌꿀이 마구잡이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된 국가로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통제할 수가 없고 벌꿀과 같이 자국의 영세한 양봉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물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기본원칙을 적용해 수입해야 하는 것이 WTO 체제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전면개방을 해야 하는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최소시장 접근 물량(MMA)은 국내전체 생산량의 약 5% 수준에 근거한 물량으로서 수입되는 벌꿀에는 20%의 관세와 일정액의 축산장려기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다. 최소시장 접근 물량으로 수입되는 양은 대략 연간 250TON~300TON(800드림~1,000드림) 정도이며 싫든 좋든 이 물량만큼은 수입이 되어야 하고 또 소비가 되어야 하는 물량이다.

1999년부터는 수입공매 권 제도로 바뀌어 일부는 무역업계에 분할되어 수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WTO에서 재협상 결과 고율 관세의 조정이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2005년도부터는 고율 관세가 없어지고 일반 관세 8%가 적용되므로 정부로부터의 양봉업계의 보호 장치 기능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많은 양봉인들은 벌꿀의 완전 수입 자유화가 시



행되는 2005년도부터 국내 양봉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일반 농산물과 같이 국내 봉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양봉업계가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양봉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도를 보내는 12월을 맞이하여 완전 수입 자유화로 가계되는 한국 양봉산업의 전망에 대해 평소에 생각해 왔던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한 전망과 이에 대처할 양봉산업 경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가오는 2001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국내 양봉산업의 활로를 찾아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1. 벌꿀의 완전 수입 자유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전망과 현실

가. 결론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2005년도부터 벌꿀이 일반 관세8%로 완전 수입 자유화된다고 해도 국내 양봉산업의 전망은 우리 양봉인들의 의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다음의 단서 조건들이 관철된다면 매우 밝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 첫째. 양질의 봉산물을 생산하여 품질을 고급화 시켜야 한다.
 - 둘째. 양봉산업경영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셋째. 계속적인 봉병 방역사업, 양봉영농 자금지원, 꿀벌의 화분 매개를 통한 양봉업계의 노력 평가,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 넷째. 국내 모든 양봉인은 양봉협회에 가입 협회를 통한 조직력을 확대 시켜야 한다.
- 이상 4가지의 단서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양봉산업은 앞으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 갈 것이며 계속 농촌의 부업 사업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금과 같이 황폐해 저가는 농촌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고 본다.

나. 국내 양봉산업의 현실 및 유의문제점

현 국내 양봉산업의 최대의 당면과제는 2003년도까지 3년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벌꿀의 품질을 고급화 시켜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불신 받는 벌꿀을 계속 생산하거나 저질의 벌꿀을 계속 유통시킨다면 2005년도부터 국내 양봉산업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 하리라고 본다.

1997년 7월 벌꿀의 수입 자유화가 시작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느낌으로써 생산업체나

판매업체 공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동안 놀랄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 불기 시작 한 마트형 대형 매장의 도입으로 계속된 판매가격의 하락은 소분포장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폭락을 유발하게 되었고 적정 선을 유지해 오던 백화점마저도 대형 마트의 저가가격에 동참하게 되므로 살아남기 위해 납품 가격에 맞추는 벌꿀 유통의 악순환이 자생하게 되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도 양심적으로 양질의 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양봉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마트점이나 백화점등에서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의 판매는 양심적인 생산자와 판매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양봉산업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양질의 최고의 벌꿀은 순수한 천연 그대로의 벌꿀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벌꿀 생산에 있어서 수분 함격의 꿀(수분21%이하의)과 벌통 내에서 성숙된 꿀의 생산은 천연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겠다.

과다한 수분 함량의 꿀(수분 23%이상)이나 미숙한 꿀은 생산을 자제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정(이동 등)으로 생산된 꿀은 그 자체만으로는 양질의 벌꿀이 될 수 없고 일부 양질의 벌꿀과 혼합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벌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꿀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이 많은 벌꿀은 많은 가격의 차등을 적용하여 그렇지 않은 벌꿀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함에도 금년도 모 양봉조합에서 이를 무시한 구매 행위는 공인된 단체로서 양봉업계의 사활이 걸린 양질의 벌꿀 생산목표에 역행하는 행위일 것이다.

다. 벌꿀의 완전수입 자유화가 되어 양봉산업의 전망을 밝다고 판단하는 이유

앞에서도 전망이 밝다고 보는데는 몇가지 단서가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양봉인들 모두의 생각이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한 다음의 사항들로 미루어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1) 국산 봉산물 품질의 우수성

우리 양봉인들이 알아야할 것은 세계적으로 국산 봉산물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약 60~70%가 아카시아 벌꿀인데 이 아카시아 벌꿀은 한국, 중국, 헝가리 등 3개국에서만 주로 생산되는 벌꿀로서 향기나, 색상, 맛 등 여러면에서 다른 꽃꿀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며 특히 국산 벌꿀의 품질이 당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밀원식물중에 하나인 아카시아는 최근에는 화목으로나 인삼 지주대 등으로 전연 사용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



라고 있어 매년 아카시아 밀원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카시아 벌꿀의 생산이 양봉관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단위 생산량이 현재 군 당 평균 약 50kg 정도로 다량 생산되고 있으며 양봉경영 방법에 따라 앞으로 단위 생산량은 얼마든지 추가 증산도 가능한 실정이다. 봉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국산 봉산물 가격이 오히려 인상된 것이 바로 국산 로얄제리이다.

세계 제1의 로얄제리 생산국인 중국산 로얄제리에 비해 약3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을 만큼 국산 생로얄제리의 품질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강한 꿀벌들이 꽃가루와 벌꿀을 복용한다 음 인두선을 통해 분비해내는 유백색의 물질인 로얄제리가 오직 꿀벌들에 의해 자연상태에서 생산되지만 국산 로얄제리의 품질과 효능은 중국산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 벌꿀과 로얄제리 뿐만이 아니고 꽃가루, 프로폴리스(봉고) 모든 봉산물에 있어서도 효능의 우수성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토질과 기후의 특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면에서 우리 한국은 참으로 복 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2) 화분매개 산업의 확대 및 중요성 증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현대 양봉은 과거의 단순 봉산물 생산(벌꿀, 로얄제리, 꽃가루)양봉에서 다양한 양봉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봉침과 봉독을 이용한 인체질환 및 가축질환의 치료, 봉고를 이용한 프로폴리스 산업, 응봉저생산, 벌꿀을 이용한 다양한 술의 개발, 꿀벌술, 밀랍생산, 화분매개산업 등 광범위하게 다양화됨으로 써 양봉산업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꿀벌을 이용한 농작물의 화분매개 산업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농촌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에 꿀벌을 이용한 화분매개에 약 10만군 이상의 꿀벌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봉군수의 약 10~15%에 해당되는 숫자로서 매년 화분매개용 꿀벌의 활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농작물 화분매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숫자이나 그 외 꿀벌의 방사로 인한 간접적인 화분매개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토마토, 오이 등 특수한 몇몇 농작물을 제외하고 꿀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 미국의 경우 미국전체에서 생산된 양봉산물의 가격에 비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해 직·간접으로 효과를 미친 금액이 약 180배 정도 높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꿀벌을 통한 화분매개 산업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

(3) 아카시아 밀원 식물의 증가

우리나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는 아카시아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문명의 발달로 화목으로 일질 사용되지 않고 기타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 보호속에 아카시아 밀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봉군수에 충분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으로서 양봉업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운 값진 밀원 식물이다.

(4) 품종개량 및 양봉관리 기술 향상으로 봉산물 단위 생산량의 증가
수입 꿀벌을 통한 퇴보된 국내 꿀벌의 품종 개량과 채밀군 관리의 기술향상이 뒷받침되면서 아카시아 밀원 식물의 계속된 증가로 최근 벌꿀 단위 생산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과거 평균 12.5kg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50kg에서 75kg까지 단위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5) 봉침과 봉독 활용으로 인체 각종 질환 예방 및 치료와 가축질환의 치료 효과 증대

현대 양봉산업에 있어 봉료 및 봉침술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양봉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현대 의학이 각종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보여 주므로서 민간요법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의료행위들이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대체 의학요법의 한 분야들로 활발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체의학요법들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봉산물을 이용한 봉료요법과 봉침을 활용한 봉침요법등이 모두 대체의학에 속하는 한 분야로서 이 두가지 요법을 같이 활용하는 봉료봉침요법이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민중 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봉료봉침요법은 간단한 질환에 대한 봉침시술 환자는 예외가 되겠으나 그의 모든 봉침시술 환자에게 봉산물의 복용을 봉침시술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하겠다. 그렇게 하므로 시술 받는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자신이 생산한 봉산물의 판매도 확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생봉독을 이용한 가축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인정되므로서 축산 농가에도 항생제 사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 경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꿀벌을 사육하는 모든 양봉인들이 봉료봉침요법의 활용으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함은 물론 봉산물 판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호에 계속...